



명사와 함께 여는 새아침

김종서 박사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교육계 원로인 김종서 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재가불자에게 수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평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처님 말씀, 사회 갈등 치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사회 불교가 대안이 될 수 있

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박사는 금강경 암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일체유심조'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하더라도 지켜야 할 계율이 있으며, 불자로서 긍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북동 김상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사회 불교가 대안이 될 수 있



'나는 불자' 긍지 갖고 사세요



◇하루를 불교로 시작해 불교로 맺는다는 김종서 박사. 금강경 암송과 참선으로 하루를 보낸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국립묘지로 산책을 갑니다. 산책하는 100분 동안 금강경을 3번 암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교로 하루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립묘지에 묻힌 넋들을 부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고 성북동 김상사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안에서 금강경을 한 번 더 암송합니다. 김상사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참선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테이프를 듣습니다. 잠들 때도 다시 금강경을 암송합니다.

▲여생을 수행으로 회향하는 것 같습니다. 재가불자들에게 수행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자 된 도리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마음속에 새기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수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현대 사회 문제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으로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는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국가적,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불교적 가르침이 있다면?
부처님을 수행자로 보기도 하지만 사회 개혁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부처님 생전 시 인도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그런 사회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下唯我獨尊)'을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나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의식이 깊게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나와 다른 견해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환경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못생명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나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드라마의 구슬에 꿰어있다고 할 때, 나와 못생명을 들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불교의 사회 참여 의식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여불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이 그러했듯 실천불교는 계급타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용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최근까지 수행불교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불교는 비판이 강할수록 정비례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불 때 한국불교의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입니다. 종교에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교에 비해 불교에 교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가나 승가 모두 '계율'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계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바뀌어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살생(不殺生, 살생을 하지 마라), 불부도(不偷盜, 도박이나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불사음(不邪淫, 음바르지 않은 이성관계를 갖지 마라),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불기어(不綺語, 생색내는 말을 하지 마라), 불양설(不兩舌,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약구(不惡口, 욕지거리 등의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불탐애(不貪愛, 탐

내 마음을 갖지 마라), 불진에(不瞋恚, 성내지 마라), 불치암(不癡亂, 똑똑한 체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등 보살 십선계(菩薩十善戒)는 시대가 아무리 변화더라도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불교는 교리나 선적인 면을 고르게 계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발전시킨 불교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바르게 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언어 소통 능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스님들의 외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강원 교과에 외국어 강좌 포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대안을 불교에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불교가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물질 위주의 사회인가 정신 위주의 사회인가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문화 범람으로 인해 영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친 현대인들이 진정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자연스레 불교가 대안으로 부각됐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또한 사회개혁의 측면도 강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사회 개혁적 측면이 강하며 평등사상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불교는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라는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한번은 어느 지인에게서 불자 유지원 원장이 원장들의 모임에 나가면 자신의 불자라는 것을 밝히길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들 대부분이 개신교인이어서 그렇다네요. 불자들이 타종교인 99명보다 우수하다는 긍지를 가지면 보시나 계율, 불교의 생활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김종서 박사는 1924년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목포지피바디 사범대 문학석사(교육학), 서울대 문학박사(교육학)를 거쳤다.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 겸 덕성여대 총장,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대통령직무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성북동 김상사에서 만난 김 박사는 80세라는 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일흔이 넘는 4명의 도반들과 매일 참선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정진하고 있었다.

교육학자이자 고 이기영 교수와 불교대중화에 헌신한 김 박사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자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1945년 방한한 스님에게 원성(圓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서울신문화상·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으며, <교육연구의 방법>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실천 없으면 평생공부도 헛 일

보살십선계, 세상 바뀌어도 지켜야

불교 세계화가 인류 정신세계 바뀌

西翁大宗師 舍利 親見法會

지난 12월 13일(음11월 20일) 열반하신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총정 서옹당 상순대종사의 종단장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단장은 고불총림 백양사에 진행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다비식으로 여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다비식 후 습골을 마치고 연화대 아래 깊이 묻었던 향아리를 열자 맑고 영롱한 백옥빛 사리 4과가 출현하였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밀봉된 향아리 속에서 사리가 출현함은 지극한 수행의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세수 92세, 법랍 72세를 일기로 없으신 체 입적하신 서옹대종사의 깊고 놀라운 수행을 증명하는 희유한 사례이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대자비심의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리는 계·정·혜의 훈수(薰修)로 생기는 수행의 결정체로서 최상의 복건이기에 공양하고 공경하면 죄업을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공덕을 사부대중에게 회향하며 서옹대종사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고불총림 백양사의 산문을 활짝 열고 사리친견법회를 열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수회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寺

- 사리친견법회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재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제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